

지역 소식 통

부안군, 고향사랑기부  
조기 마감 이벤트 추진

부안군은 연말을 맞아 진행한 고향사랑기부 이벤트가 조기 마감됨에 따라 기부자들의 높은 관심에 응답하고자 애플 이벤트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고향사랑기부 참여 활성화를 위해 10만원 이상 기부자 20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포인트 1만원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신청순이 채워지며 조기 종료됐다.

이벤트 기간 내 부안군 '야생별 봉봉이'를 지켜주세요! 지정기부 사업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선택까지 완료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응모된다.

신청순 200명에게 네이버 포인트 1만원권이 지급되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 '고향사랑기부' 또는 오프라인 전국 NH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기부하면 된다.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389억원 지급

고창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8일부터 읍·면 주민행복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기본공익직불' 통장에 표기되어 입금되며, 총 1만2,994농가에 389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창군은 올해 2~5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해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자격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선정된 4,804농가에 62억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업인(법인 포함) 8,177명에 327억원이 지급된다.

전년도 소농직불금 단가가 130만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올해는 농업인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면적직불금 단가가 2024년 100만원~205만원/ha에서 2025년 136만원~215만원/ha로 5~36% 인상되어 지급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갯벌, 국가유산청 우수사례 선정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세계유산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반 확장 성과 인정

고창군이 국가유산청 주관 '2025년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 평가'에서 고창갯벌 홍보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대표 프로그램인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B.B.R.)'는 4회를 맞아 국내 대표 철새 탐조대회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국내·외 35개 팀 126명이 참여해 153종의 철새를 관찰하고, 고창군 미기록종 5종을 새롭게 확인했다. 참가자들이 기록한 1,793건의 탐조 데이터는 세계유산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창갯벌 세계유산학교'는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생태 놀이, 탐조 체험, 전문가 강의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갯벌 생태감수성을 높였다.

올해 처음 열린 '고창갯벌 해양쓰레기 줍기 대회(B.G.R.)'는 참가자들이 직접 갯벌 보전에 참여하는 실천형 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프로그램



그럼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확대하고, 참여 기반을 확장한 점이 높게 평가되어 고창갯벌 홍보사업은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홍보·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년 국가유산청 공모에서 '홍보지원사업'과 '활동프로그램' 2개 분야, 총 6개 사업에 선정돼 4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빅

버드레이스, 세계유산학교, 탐조박람회, 청년캠프 등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세계유산 활용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최순필 세계유산과장은 "올해 추진한 고창갯벌 홍보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뜻깊다"며 "갯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동절기 건설현장,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이학수 정읍시장, 철저한 안전 점검·시공 관리 당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이학수 정읍시장의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8일 오전 영상간담회의를 주재하며 동절기 공사 현장의 철저한 안전 점검과 시공 관리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학수 시장은 겨울철 기온 급강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언급하며, 각 부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건설 공사의 핵심인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해 동절기 시공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등 안전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

다”며 “콘크리트 타설 시 보온 조치를 철저히 하고,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뿐만 아니라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현장의 품질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동절기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현장을 살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농공단지 청년친화형 임대형 기숙사 건립 공모 선정

부안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원 투입... 4층 규모·65명 수용 원룸형 기숙사 건축 추진

부안군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한 노후 산업단지 청년친화형 환경 개선사업인 임대형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부안 제3농공단지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70억원, 도비 9억원, 현물 8억원, 군비 13억원)을 투입해 4층 규모로 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룸형 기숙사를 건축할 계획이며 완

공되면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입주 기업체들의 숙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999년 준공된 부안농공단지는 인접 부지에 제2농공단지와 제3농공단이 조성돼 있으나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이번 공모로 조성되는 기숙사 내부에 무인카페와 편의점, 코인세탁소 등을 설치해 농공단지 근로자

와 입주자들의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군은 기숙사 건립이 제3농공단지 분양 활성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주 환경이 갖춰질 경우 기업의 인력난 완화뿐 아니라 신규 기업 입주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농공단지 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무장에 관광 도시’ 구축 속도

정읍시 문화공원·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최종 선정...누구나 불편 없는 관광 환경 구축

정읍시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관광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국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관광지 내 보행로와 경사로, 단차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아가 장애인·고령자 등 구애받지 않고 모든 관광객이 온전히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정읍시는 △백제가요 정읍시 문화공원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 총 3개소가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시는 정읍 관광의 접근성을 높이고 포용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정읍은 내장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백제가요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교육적 가치가 높은 도시다. 이에 따라 가족 단위 방문객과



고령층 관광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지속적인 무장애 관광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구절초 지방정원과 내장산국립공원이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2년 연속 선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며 그 의지를 인정받았다.

시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상담(컨설팅)을 거쳐 선정된 관광지 내 보행로를 정비하고 편의 및 휴게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동 약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관광지의 특성을 살린 연령별, 대상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양돈농가에 ‘스마트’ 입힌다

'지역맞춤형 솔루션 및 스마트 패키지 보급 공모사업' 선정  
관내 양돈농가 13곳, 최첨단 스마트 사육 시스템 지원 예정

정읍시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양돈 농가에 구원투수로 나섰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맞춤형 솔루션 및 스마트 패키지 보급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관내 양돈농가 13곳에 최첨단 스마트 사육 시스템을 지원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축산 현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지역 특유의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가축 폐사 위험이 커지는 등 사육 환경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가중과 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따른 저탄소 축산물 생산 요구까지 더해져,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이러한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형 스마트 축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핵심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축사 환경을 정밀하

게 제어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된 양돈농가 13개소에는 △고효율 냉방시스템(쿨링패드, 환기팬, 미스트 등) △사육 환경 모니터링 센서(온·습도, 암모니아 농도 등) △축사 환경 자동제어 시스템(데이터 기반 사육환경 분석 플랫폼 등) 첨단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보급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축사 내부의 온도, 습도, 유해가스 농도 등 주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분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환기 및 냉방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해 가축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의 환경을 24시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름철 폭서기에는 돼지의 고온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폐사율을 낮추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아 전력 사용 효율을 높임으로써 사육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